

## 2002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2월19일 섬유센터(강남구 삼성동)에서 2002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국제전기(주) 김준철 회장을 선임하고, 공창덕 現 상근부회장을 재 선임하였다.

또한 진흥회는 정기총회에서 전기업계의 권익을 위

하여 많은 공헌을 한 전임 조총회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앞으로도 전기업계에 대한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하였다.

(문의: 기획관리팀)

## 2002년도 전기산업 시책설명회

진흥회는 또한 정기총회 폐막 이후 전기산업시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는 ▲중전기기산업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우리업계의 준비자세(에이스기술단 윤갑구 사장) ▲중전기기 기반구축사업 과제 안내(전기연구원 송대익 실장) ▲2002년도 중전기기산업의 발전전략(진흥회 박병일 팀장) 등의 주제로 연사

들의 강연이 있었으며, 2002년 중전기기 기술개발과 수출지원 및 PL추진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문의: 기술진흥팀)

## 한국산 전력기자재 중동 두바이전시회에서 호평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2월3일~6일까지 세계전력기자재 특새시장 및 중동지역 시장 개척을 위하여 중

동지역의 산업중심지인 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Middle East Electricity 2002" 전시회에 LG산전

(주)등 17개 사가 참가한 가운데 한국홍보관을 운영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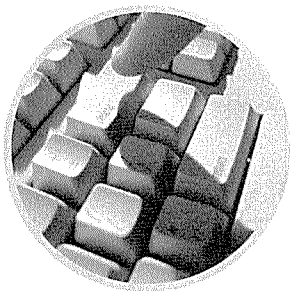
금번 전시회에는 특히 중동국가들의 대규모 전력 산업망 확충사업과 해외 전력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등 세계적인 전력기자재 제조 39개국 397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한국관에는 인근 중동국가의 바이어들이 대거 참관하여 구매 상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중전기기 기술 수준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시 기간중에는 4천여명의 바이어들이 방문하여 63백만불의 상담실적과 27만불의 현장 계약을 체결하는 등 높은 성과를 올렸다.

특히, 중동지역의 시장은 유럽산이 고가격임에도 불구하고 70%를 선점하고 있으나 우리 제품은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제품에 대하여 참관 바이어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현지 단독 에이전트를 요구하는 바이어들이 대부분으로 참가 업체들이 중동지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전기기 업체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중동의 대규모 건설사업 프로젝트를 수주하고도 설비제품의 신뢰도가 부족하여 납품하지 못하였으나, 진흥회에서는 향후 건설업체와 협력하여 중전기기 설비를 납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며, 아울러 올해 11월3일~7일까지 개최되는 2002 서울국제종합전기기전 기간중에 중동지역의 전력청 구매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 업계와의 수출상담회 주선을 위해 계획 중에 있다.

한편, 그동안 격년으로 개최하던 두바이 전시회는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하며 2003년도에는 1월19부터 23일까지 4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진흥회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매년 참가할 계획이다.

(문의: 통상전시팀)



##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omepage - <http://www.koema.or.kr>

